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최경규

전화 02-3399-4302 / 팩스 02-3399-4555

보도자료

2019. 7. 22.(월)

자료문의 : 건설·조세·재정범죄
전담부(형사 5부)
전화번호 : 02-3399-4308
주책임자 : 부장검사 김명수

무자료 은그래놀 유통 위해 다수의 유령업체 설립하여 600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한 자료상 조직 적발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016. 4.경부터 2018. 3.경까지 약 2년간 190억 원 상당의 무자료 銀그래놀(알갱이 형태의 銀)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총 12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합계 6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 조직을 적발하여, 총책과 전주(錢主)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령업체 대표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피고인들은 다수의 유령업체를 단기간에 설립·폐업하면서, 거래사진, 계량증명서, 은행거래자료 등 허위 거래증빙자료를 마련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조사대비 시나리오’를 공유하는 등 범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대비함
- 위 사건들은 대부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유령업체별로 개별적으로 고발된 사건이었으나, 조세전담 검사실과 조사과 조세전담팀의 긴밀한 협업 수사로 조직적 자료상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가담자 전원을 엄단한 사례임

1

사건 개요

1. 수사진행 경과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직고발 사건을 조사과 조세전담팀에 수사 지휘하여 수사 중,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과정에서 다수의 업체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정황 포착
 - ☞ 서울북부지검은 2018. 7.부터 조세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조세 직고발 사건을 당청 조사과 조세전담팀에 수사지휘하여 조세전담 검사가 밀착 지휘하고 있음
- 조세전담 검사실에서 2019. 4.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하여 자료상 조직을 총괄한 총책 등 주범의 존재 밝혀내고, 2019. 4.~ 5. 주범들에 대한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통해 총책의 주도 하에 총 12개의 업체가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확인
- 기존에 무혐의 처분되었거나 타청에서 수사 중인 관련사건 일체를 이송 받아 동시에 수사 진행하여, 2019. 5.~ 7. 총책 및 범행자금을 제공한 속칭 '전주(錢主)' 등 주범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유명업체 대표 등 공범 10명을 불구속 기소함

2. 주요 공소사실 요지

- A○○(자료상 조직 총책)는 2016. 4.경부터 2018. 3.경까지 무자료 은그래늘 유통에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해 총 12개 유명업체를 설립한 다음, 유명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각 업체 명의로 합계 45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각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참조

2

수사결과

1. 조직적 자료상 범행의 실체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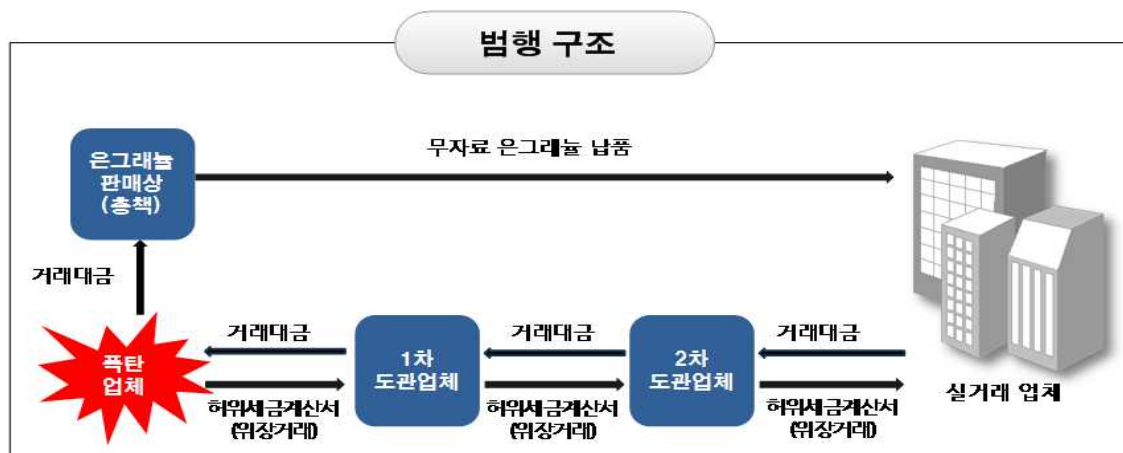
- 총책 A○○는 2016. 4.~2018. 3. 다수의 속칭 ‘전주’를 끌어들이어 그들의 자금으로 함께 19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은그레놀을 매입한 다음, 이를 비철금속 업체 (이하 ‘실거래 업체’)에 매도하여 거래수익을 얻음



[은그레놀]

-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지인 등을 대표로 내세워 총 12개의 ‘폭탄업체’(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자료상), ‘도관업체’(폭탄업체와 실거래업체 사이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폭탄업체의 세금계산서를 세탁하는 자료상)를 설립한 다음, 위 각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마치 폭탄업체 → 1차 도관업체 → 2차 도관업체 → 실거래 업체 순으로 은그레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위 각 업체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600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위 각 업체 대표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수료를 지급함

- ☞ 폭탄업체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직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고, 도관업체는 매입·매출 액수를 맞추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으며, 실수요업체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결국 부가가치세를 누구도 부담하지 않는 구조임



2. 진화한 범행수법 확인

- 피고인들은 다수의 업체가 순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범행규명이 어려운 점에 착안, 3~5개의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 사이에 순차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위장 거래라인을 구축하고, 업체를 단기간에 개업·폐업하며 주기적으로 거래라인을 교체함
-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① 각 유령업체 대표들이 실제로 은그래놀을 순차 전달한 다음 거래사진을 촬영하고, ② 거래처간 단가협상을 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내역을 남기고, ③ 실거래업체에서 도관업체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각 업체 계좌에 순차 금원을 송금하여 거래내역을 남긴 후, 폭탄업체 대표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총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계좌추적을 불가능하게 함
 - ☞ 이 과정에서 유령업체 대표가 업체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총책 A○○와 전주(錢主) D○○가 위 대표를 사기죄로 허위고소하고, 위 대표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고, 위 대표를 찾아가 망치를 휘둘러 금원을 강취함
- 세무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자, 총책이 유령업체 대표들에게 ‘조사대비 시나리오’를 건네주고 상호 철저히 입을 맞추어 각 업체 간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함



3

수사 의의 및 향후계획

- 자료상 범행은 대부분 각 업체별로 개별적으로 고발 및 수사가 이루어 지므로 전체 범행 구조를 파악하기 힘들고, 범행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어 적발이 어려움
- 당청 조세전담 검사실과 조사과 조세전담팀의 협업 하에 계좌추적,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의 주도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자료상 범행임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을 일거에 수사함으로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사례임
- 서울북부지검은 향후에도 조세범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별지]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 (34세)	총책	- '16. 4.~'18. 3. 총 12개의 유명회사를 설립한 다음, 위 각 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합계 450억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 D○○와 공모하여, '18. 9.경 유명업체 대표 ㄱ○○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사무실에 침입 - D○○와 공모하여, '18. 9.경 위 ㄱ○○을 찾아가 망치를 휘둘러 현금 300만 원 등 금품 강취	'19. 5. 3. 구속기소
2	B○○ (40세)	자료상	'17. 1.~'17. 9. 합계 181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5. 3. 구속기소
3	C○○ (37세)	자료상, 속칭 '전주'	'17. 4.~'17. 9. 합계 145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5. 20. 구속기소
4	D○○ (44세)	속칭 '전주'	- '17. 5.~'18. 3. 합계 200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A○○와 공모하여, '18. 9.경 유명업체 대표 ㄱ○○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사무실에 침입 - A○○와 공모하여, '18. 9.경 위 ㄱ○○을 찾아가 망치를 휘둘러 현금 300만 원 등 금품 강취	'19. 6. 11. 구속기소
5	E○○ (43세)	자료상	'16. 1.~'18. 3. 합계 384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5. 20. 불구속기소 (구속영장 기각)
6	F○○ (50세)	자료상	'16. 1.~'16. 10. 합계 118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5. 20. 불구속기소 (별건 구속 중)
7	G○○ (51세)	자료상	'16. 1.~'16. 10. 합계 118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5. 20. 불구속기소 (별건 구속 중)
8	H○○ (36세)	자료상	'17. 11.~'18. 3. 합계 96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7. 17. 불구속기소
9	I○○ (34세)	자료상	'17. 7.~'17. 9. 합계 55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5. 20. 불구속기소
10	J○○ (37세)	자료상	'17. 7.~'17. 9. 합계 27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7. 17. 불구속기소
11	K○○ (41세)	자료상	'16. 12.~'17. 12. 합계 19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5. 3. 불구속기소
12	L○○ (47세)	자료상	'17. 1.~'17. 2. 합계 17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7. 17. 불구속기소
13	M○○ (29세)	자료상	'18. 2.~'18. 3. 합계 18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7. 17. 불구속기소
14	N○○ (47세)	자료상	'18. 2.~'18. 3. 합계 18억 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19. 7. 17. 불구속기소